

상세설명 (***)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적절한 숙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이탈리아 유학비자 신청인은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날부터 체류기간 (등록한 과정 기간) 내내 거주할 곳 (Alloggio 라고 하며 집/호텔/Residence 등을 말함) 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등록된 또는 초청하는 학교, 단체, 회사가 숙소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주는 학교, 단체, 회사가 발급한 진술서 (여기에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이 계약한 alloggio 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호텔/Residence/ 민박 관련 계약서.
3. 한국인등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비자신청인의 가족, 친척, 친지, 친구가 alloggio 를 제공한다면

A)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 자신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임대한 집이면 >>

- 비자 신청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진술서
(이탈리아 정부 양식인 **dichiarazione di granzia e/o alloggio** 를 사용하세요.

<http://vistoperitalia.esteri.it/Moduli/it/DICHIARAZIONEALLOGGIOPARANZIA.PDF> 에서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 유효한 체류허가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상의 규모가 타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제시 할 수 없는 분은 공증인에게서 원본 대조 공증을 받은 사본을 내세요)

주의: 만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를 놓거나 무료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를 놓거나 무료로 거처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집이 자신 소유 'abitazione di mia proprietà'이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집주인의 서명이든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이탈리아인이면 진술서를 **dichiarazione sostitutiva atto di notorieta** 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이 양식은 이탈리아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Comune 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Comune 에 문의하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제목을 구글 검색창에 쳐도 나올 것 입니다.

진술서와 함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을 제출합니다.

집주인이 한국인등 외국인이면

진술서와 함께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과 체류허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자신이 소유한 집이면 >>

- 비자 신청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진술서
(이탈리아 정부 양식인 **dichiarazione di granzia e/o alloggio** 를 사용하세요.

<http://vistoperitalia.esteri.it/Moduli/it/DICHIARAZIONEALLOGGIOPARANZIA.PDF> 에서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 유효한 체류허가서 사본
- 집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B)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인인 경우

<< 자신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임대한 집이면 >>

- 비자 신청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진술서
(이탈리아 정부 양식인 **dichiarazione di granzia e/o alloggio** 를 사용하세요.

<http://vistoperitalia.esteri.it/Moduli/it/DICHIARAZIONEALLOGGIOPARANZIA.PDF> 에서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의: 만일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를 놓거나 무료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세를 놓거나 무료로 거처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집이 자신 소유 'abitazione di mia proprietà'이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집주인의 서명이든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이탈리아인이면 진술서를 *dichiarazione sostitutiva atto di notorietà* 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이 양식은 이탈리아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Comune 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Comune 에 문의하면 도움을 줄것입니다. 그 제목을 구글 검색창에 쳐도 나올 것 입니다.
진술서와 함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을 제출합니다.

집주인이 한국인등 외국인이면

진술서와 함께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과 체류허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자신이 소유한 집이면 >>

- 비자 신청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진술서
(이탈리아 정부 양식인 *dichiarazione di garanzia e/o alloggio* 를 사용하세요.

<http://vistoperitalia.esteri.it/Moduli/it/DICHIARAZIONEALLOGGIOPARANZIA.PDF> 에서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을 제출합니다.
- 집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비자 신청자가 아직 이탈리아 체류증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못했다면:

- 집주인의 계약을 할 의향이 있음을 진술한 *Dichiarazione sostitutiva atto di notorietà* 를 (이 서류에는 그 집이 집주인 소유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함.) 또는 임시계약서 (*Proposta di locazione immobiliare*) 사본을 제출.
-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서명과 인적사항이 든 면) 을 제출합니다.
- 집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1), 2), 3), 4)번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준하는 체류기간동안 거처할 곳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6. 한국 - 이탈리아 대학간 교환학생이나 미국대학 학생으로서 이탈리아 캠퍼스로 가는 분들은 이탈리아 학교가 발급한 확인서에 거주지를 구해주는 것을 도와준다는 문구가 들어 있거나 이탈리아내 미국대학 캠퍼스가 발급한 확인서에 이미 거주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의 확인서에 문구가 빠져 있다면 이메일로 확인 받은 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협정서에 거주지를 구해주는 것을 도와준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학교가 소재한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 어느 정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라면 인정이 켜지만 너무 먼 경우 비자 담당자는 과연 통학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비자를 발급할 것입니다